

그리스도인은 중독에서 자유로운가?



김승욱 교수 (발행인)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받고,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고용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호의 표지인물에서는 기독교상담과 가정사역자로 그리고 이단과의 싸움으로 평생을 살아온 정동섭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본 동역회의 상담학분과장도 역임하시고, 오랫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헌신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구원파에 들어갔다가 아내를 만났고 유병언의 통역비서까지 했지만, 구원파에서 탈퇴해서 구원파와 수십 회 법정싸움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종교중독자라고 명명했습니다. 미국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TEDS)에서 상담심리석사와 가정사역전공 Ph.D를 받고 대전 침례신학교에서 18년간 교수를 역임하다가 지금은 한동대학교 외래교수로 있습니다. 갓피플몰에 그의 저

서 8권 세트가 판매되고 있는데, 주로 가정사역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그의 삶을 제자인 정인숙 (그린상담소 소장) 박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특집 주제는 ‘중독’을 다루었습니다. 전도해보면 술과 담배를 끊고 나서 교회에 다니겠다는 사람이 꽤 많고, 이를 못 끊어 차라리 가톨릭으로 가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선교초기부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의 표상으로까지 강조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중독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집 기사로 “중독”을 다루



는 이유는 술과 마약 등 물질중독의 주요 주제 이외에도 오늘날 다양한 형태의 행위중독현상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미디어 중독이나 쇼핑 중독 심지어 이념 중독 등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크리스천들에게서도 예외적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질 중독 등은 일부 중독자에게 한정된 문제였으나 행위중독은 헌신된 크리스천도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독 문제의 기독교적 조명을 위해서, 기독교상담학을 전공한 하재성(고신대) 교수로부터 중독의 신학적 이해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중독문제에 가장 전통적인 유형인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한국중독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했

고, 현재 한국심리학회 회장인 총신대 재활중독학과의 조현섭 교수로부터 알코올 중독의 원인과 처방, 그리고 진단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조교수는 오랫동안 보건복지부에서 중독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일을 했으며, 28년간 중독분야에 종사해 '중독의 대모'라고 불립니다.

다음으로는 행위중독의 영역인 도박중독 문제에 대해서 한국도박중독관리센터 서울남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영민(을지대)교수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도박이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식거래나 최근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열풍을 볼 때 거의 도박의 수준에 가깝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요즘 많이 빠져있는 게임이 도박과 융합되어 게임머니가 도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 가족여행을 갔다가 도박중독에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중독도 일부 계층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번 중독문제는 분야가 다양해서 여러 분들로 부터 글을 받았습니다. 다음 세 편의 글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중독분야입니다. 미디어 중독과 쇼핑중독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미디어 중독은 오늘날 가장 널리 퍼져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편의 글을 실었습니다. 미디어중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이형초(서울사이버대학, 성심여대 심리학과 겸임)교수는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문제점과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은 특히 유아기 아동들에게 스마트미디어가 얼마나 유해한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중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원하시는 분은 송인규 (합신대, 은퇴)교수께서 추천하시는 다음의 책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랄드 메이의 「중독과 은혜」, 마이클 쿠하의 「중독에 빠진 뇌」, 에드워드 웰치의 「중독의 성경적 이해」, 윌리엄 스트러더스의 「남자의 뇌: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허근의 「나는 알코올 중독자」, 안드류 도안의 「게임 중독의 심리 분석」의 여섯 권에 대해서 간단한 서평과 목차를 함께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봉호 대표주간께서는 이념중독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물질이나 행위가 주는 쾌감에 사로잡혀서 해로운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념의 율음에 대한 “거룩한” 확신 때문에 이념에도 중독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념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독선적이 되기 때문에 이념중독은 다른 중독보다 더 부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권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을 보면 이념이 얼마나 생존력이 강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폴 포트 등 공산독재자들이 수천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기 까지 했으므로 그 해악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기독교인 가운데 이념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계도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서 싸우는 것을 보면 이념중독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